

7일은 스리랑카와 루마니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뿌리안나와 마헤시에겐 'Happy Day'였다. 금강사에서 열여섯 한가위 맞이 잔치를 와서 무료진료를 받고, 한국 음식도 맛보며 수월리 주민들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냈기 때문이다. 뿌리안나는 3년 계약으로 '천천히 가는 섬' 스리랑카를 떠나 한국의 섬도시, 거제도에 온 지 4개월차. 올 추석은 한국에서 맞는 첫 명절이다.



**거제 금강사  
외국인 노동자 한가위 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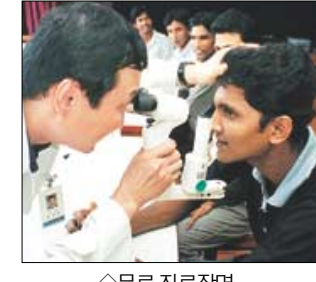
한국 동료들이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고 연휴를 기다리는 동안, 마헤시도 루마니아 친구 7명과 함께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속절없이 그리워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거제시 시현읍에 있는 금강사(주지 성원사)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무료진료와 한마당 잔치를 연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 체적응도 되지 않은 타국 생활의 외로움을 달랠 뿐이었다. 그러나 7일, 뿌리안나, 마헤시 일행들은 금강사가 인근 수월초교에서 마련한 한가위 잔치에서 "Happy! Happy!"를 연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리운 가족들도, 타국이라는 낯설음도 잠시 잊고 수월리 마을 어르신들의 웃음 속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난 기분이었다.



◇스리랑카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풍물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이날, 금강사가 한가위를 맞아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잔치를 연다는 소식을 접한 감로심장회(이사장 승욱스님)와 진주 경상대병원 불교모임인 보련회(회장 강석취, 진주 선학로타리클럽 회장 김길수)에서 선뜻 함께 할 뜻을 비쳐 무료진료소까지 문을 열게 됐다. 매주 일요일마다 진주 봉곡로타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사랑의 진료소(소장 하우승)를 열고있는 경상대 병원 보련회에서도 무료진료를 자청했다. 그 뿐만 아니라 감로심장회와 선학로타리클럽 회원들은 진료 보조로 바쁜 일손을 덜어주었다. 흉부외과 이상호 교수, 안과 유지명 교수, 일반외과 하우승, 박순태 교수, 이비인후과 안성기 교수와 박희자 간호사의 7명의 간호사들이 진료 준비를 마치고, 접수와 진료, 처방, 침치료가 일사분란하게 진행됐다. 통역 자원봉사를 맡은 금강사 신도들의 안내로 외국인 근로자들도 하나 둘 진료소를 찾았다.

**잔치소식에 보련회등 무료진료, 봉사 자청 주민들 2백여 귀한 손님 대접에 함박웃음  
 흥겨운 사물놀이와 함께 마음도 하나**



◇무료 진료장면.

안나와 친구들이 명실명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풍물소리가 자진모시, 휘모리 장단으로 흥겨움을 더하자, 이를 지켜보던 마을 주민들의 박수소리도 높아졌다. 오후 2시경, 무료진료가 마무리되었다. 각종 의료장비가 정리되고 교실에 차려

졌던 통증치료를 위한 침 치료실도 문을 닫았다. 그러나 잔치상에 모여 앉은 외국인들은 오래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정담을 나누며 넉넉치 못한 살림살이와 낯 설은 이국의 외로움을 잊고 한가위의 풍성함을 나눴다. "도움이 필요하면 형편 닿는 대로 꼭 도움 테니 자주 만나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향한 성원스님의 굳은 약속이 있어, 금강사의 한가위 잔치는 긴 여운을 뒤로한 채 내년을 기약할 수 있었다.

글=천미희 기자 mincheo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jygo@buddhapia.com

**한가위...oh! Happy day!**



◇외국인을 위한 다도 시연회.

차려입은 다도회 회원들의 손놀림을 호기심 어린 눈길로 지켜봤다. 다도 시연이 끝나자 다도회 회원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차를 대접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진촬영을 부탁하기도 하며 차를 맛본 후에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이어진 한마당 잔치는 거제시 문화예술포리(회장 최상희) 회원들이 흥겨운 풍물놀이로 시작했다. 팽과리, 북, 장고, 징 소리가 따갑게 내려앉은 햇살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고깔을 쓰고 장고를 맨 소리꾼 회원들이 만든 큰 원안에서 마을 활아버리와 마헤시, 뿌리

**금강사 주지 성원스님**  
 "어려운 사정알고 밥 한끼 대접하러"  
 기업체의 자발적 참여 없어 아쉬워

"얼마 전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금강사를 찾아왔어요. 그들을 만난 후 이국 땅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그들의 사정을 알게 됐고, 그것이 오늘 행사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강사 주지 성원스님은 "민족의 축제라고 온 나라가 떠들썩한 명절에 더욱 소외되기 쉬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 대접하고 싶었다"며 이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성원스님은 "돈을 벌면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대부분을 보내고 어렵게 생활한다고 들었다"며 "그들을 위해 앞으로 법회나 각종 행사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 하나로 시작된 행사였지만 기업체들의 반응이 그리 협조적이지 않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여

면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기업체에서 계획에도 없던 자체 체육대회를 열어서 참여를 못하게 하더군요." 섭섭함을 토로한 성원스님은 "그러나 마음이 순수하면 내년에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겠나"며 마음을 돌렸다.



금강사가 수월리에 자리를 잡은 지 일년 남짓. "이웃과 함께 숨쉬는 불교, 불교와 사회를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는 스님의 발원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각종 행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간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대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 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나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은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히 행(行)하고 활(活)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병들고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